

공주시 마을자원 조사표

1.마을주소 : 정안면 장원1리 / 자연마을명 : 강성기미, 구억말, 장자울								
2.대표자 성명 : 이○하 직책 : 이장 휴대폰 : 010-0000-0000								
3.마을인구 주민수 : 110명 / 가구수 : 67세대 / 1인가구 : 12가구 / 빈집 : 12가구								
구분	총합	0~14	15~19	20~29	30~49	50~64	65~79	80이상
총합	110	3	4	4	6	37	51	25
남자	63	1	2	4	4	20	26	6
여자	47	2	2	0	2	17	25	19
'23년 12. 9. 이장님 인터뷰 결과 3~40년 전에는 320명이 넘는 인구와 5개 반으로 구성된 마을이었다고 함								
4. 마을주민의 직업								
구분	농 가			비농가			기타	
인원수	37가구 69명			30가구 46명			외지 출퇴근 5~6가구	
5. 마을 주요자원 (전체 조사 후 정리)								
자연환경	정안천, 고성천, 들(총적평야)							
경제	세영레미콘, 모곡농원, 달원농원(태양광 포함), 바이언드컴퍼니, 축사2개소(한우), 공주알밤유통센터							
공동체	하나작목반, 장원작목반, 마을회(기타조직 포함)							
역사문화	돈령공 문중 종손댁, 비석 4개소 등							
6. 마을사업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내용				
2020	장원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1.3	정안면					
2021	정안면 장원1리 소규모수도시설 관정개발공사	21.1	본청					
	장원1리 진료소 내 운동기구 이전공사(생활민원)	1.5	정안면					
	정안면 장원1리 외 3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전기공사	21	본청					
	정안면 장원1리 마을안길 사면 정비공사	33.42883	본청					
	정안면 장원1리 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공사	122.414	본청					

6. 마을사업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내용	
2021	장원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2.38	정안면		
2022	장원1리 마을안길 사면정비	16.72	정안면		
	정안면 장원1리 소규모수도시설 확충공사	41.378	본청		
2023	장원1리 농로포장공사	14.66	정안면		
	정안면 장원1리 농로포장공사	17.3	본청		
7. 귀농귀촌인구(최근10년간)					
귀농귀촌 가구 수		귀농귀촌 인구 수			
5		9			
'23년 12. 9. 이장님 인터뷰 결과 귀촌이 대다수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수	다문화가족 인구 수	다문화가족 자녀수(미성년)			
1	6	2			
9. 마을회관					
신축년도	규모(평수)	사용빈도(월)	경로당 겸용 여부	토지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
2021	1층94㎡(28평)	상시	○	장원1리 마을회	장원1리 마을회
공동식사(점심, 평균 15명) 이용					
10. 마을 대표자(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사업추진위원장 등)					
구 분	조직 유무	연락처(이장님 만), e-mail			
이 장	이○하	010-0000-0000			
노인회장	○				
부녀회장	○				
청년회장	×	청년회 건물은 있으나 활동 없음			
추진(개발)위원장	○				
지도자	○				
1반장	○				
2반장	○				
3반장	○				
4반장	○				

11. 마을 규약(정관), 고유번호증 유무(영농조합, 마을기업의 정관 유무)				
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사업자번호)	
장원1리 마을회				
장원1리 경로당				
12. 마을기금 운영 현황				
단체명	금융기관명	예금주와 단체명 일치 여부	예금액(개략)	사용현황 및 기금확보 방법 (ex, 마을행사, 한전불입금 등)
비공개				
12-1. 마을 부동산 현황				
비공개				
13. 주택현황				
5년내 신축	빈집		슬레이트(거주지)	
x	12		x	
14. 정주여건				
상수도 (지하수, 간이, 광역)	도시가스	LPG (탱크, 개인)	광대역통합망 (유무선, 방송 및 인터넷)	하수도
간이	x	회관 LPG 대부분 기름보일러	○	개인
2025년 광역상수도 공사 예정				
15. 마을의 유래 - 마을명, 자연마을명, 구전설화(1)				
<p>[명칭 유래] 행정구역 개편 전의 이름인 장척리(長尺里)와 궁원리(弓院里)에서 '장(長)'자와 '원(院)'자를 따 '장원(長院)'이 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p> <p>마을 전통 지명 등은 붙임2. 공주의 전통마을 제8집 참고</p>				

□ 마을의 자연자원

구 분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세부설명
지리적 일반현황 (지리적특성)	<p>정안면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정안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천안~논산 간 고속국도가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전평리에, 북쪽으로는 운궁리에 연결된다. 국도 23호선도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전평리에, 북쪽으로는 운궁리에 연결된다. 지방도 604번도 남북 방향으로 뻗어 남쪽으로는 의당면 덕학리에, 북쪽으로는 어물리에 연결된다.</p> <p>[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p>
동식물	특이자원 없음
농업경관	<p>①정안천변을 따라 펼쳐진 충적평야에는 논 농사를 짓고 있으며 산기슭에는 밭 작물 및 밤을 재배하고 있음</p> <p>②마을 주변의 산지에는 밤을 재배 중(15정, 약 4.5만평 규모)</p> <p>③고추, 망고수박,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시설재배 중</p>
농촌경관	산세와 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 근처의 대지에 주거지가 밀집하여 위치함
자연경관	<p>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문천리 경계에서 발원하여 신관동에서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p> <p>[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p> <p>장원리의 서부와 동부로는 해발 고도 100~2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중부로는 정안천(正安川)에 의해 해발 고도 60여m에 충적 평야가 있다</p> <p>[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p>
특이사항	

□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자원명	세부설명
유형 역사문화 자원	장원리 토광묘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강성기미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의 무덤. 1999년 발굴 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202기 등의 다양한 생활 유적과 매장 유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유적 내용은 신석기시대의 퇴적층과 청동기시대의 집자리 및 저장 구덩이, 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와 토광묘, 옹관묘, 조선시대 건물지와 민묘 등이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붙임1. 공주 장원리 유적 참고
무형 역사문화 자원		붙임2. 공주의 전통마을 제8집 참고
인적 자원		붙임2. 공주의 전통마을 제8집 참고
특이사항		

□ 마을의 경제자원

구분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자원명	세부설명
농·림·축·수산물	벼	37가구의 농가에서 재배 중
	밤	마을 내 3~4가구가 15정 규모로 재배 중
	하우스 축사(한우)	포도, 고추, 망고수박,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 재배 마을 내 축사 2개소 위치(각 한우 60두, 150두)
	음식 및 식품	동동주
특이사항	마을 내 축사는 3개소로 확인되었으나 2개소 운영 중으로 파악	

□마을의 경제자원 2

구 분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자원명	세부설명
시설자원	농업 관련시설	정안농협산지유통센터/밤판매장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예냉, 저장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대형 유통업체나 도매 시장에 판매하는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며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 밤 판매도 같이 운영됨.
		공주알밤유통센터	알밤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밤과 관련된 다양한 식료품을 제조함 ex) 알밤빵, 군반용칼집밤
		'23년 12. 9. 이장님 인터뷰 결과 밤 선별시기에 마을 주민들 일부가 일용직으로 근로한다고 함	
	관광·휴양시설	없음	
시설자원	산업시설, 태양광 기타	태양광 단지	달원농원(쌍달리 주민)주인이 소유한 태양광 단지
	사업체	세영레미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장원장자울길 11-16 '23년 12. 9. 이장님 인터뷰 결과 마을 행사 시 찬조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없다고 함
		모곡농원	알밤농원, 밤줍기 체험, 알밤 판매 진행
		달원농원	쇼핑몰 홈페이지도 있으며 알밤, 옥광등 다양한 품종 밤과 대용량 밤도 구매 가능함. 쇼핑몰 홈페이지 링크: https://dalwon.com/index.html
		장자울농원	2만평의 농원에서 봄에는 자두, 여름에는 복숭아, 가을에는 가을에는 사과&배, 겨울에는 분재소나무 재배함. 매년 10월 마지막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 사과따기 체험을 진행함. 유튜브,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 홍보활동 및 체험예약을 진행하고 있음.
		바이อนด์컴퍼니	충남 공주시 정안면 장원장자울길 73-69 강성기미(1반)에 위치한 가공식품(참기름) 도매업 중소기업
특이사항			

□ 마을의 생활권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자원명	세부설명 및 위치
마을 생활권	생활환경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이 마을 내에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은 교육·복지·의료·상업 등의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공주시내로 이동한다고 함	
교육시설 (마을회관부터 거리확인)	없음	인근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석송리의 석송초등학교와 광정리의 정안초·중학교
복지·의료시설	없음	인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은 장원리의 장원보건진료소
문화여가시설	없음	
특이 사항		

□ 마을의 공동체자원		
자원분야	세부항목, 규모 및 주요 특징	
	자원명	세부설명 및 위치
마을조직 및 공동체활동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반장	일반적인 마을들과 마을조직의 활동은 큰 차이가 없음 마을회 - 마을 대소사 전반 관리 노인회 - 노인회 활동 주관 및 마을 대소사 자문 부녀회 - 마을 행사 및 기타 활동 주관 개발위원회 - 마을개발 관련 대소사 주관 새마을지도자 - 마을 및 새마을활동 관련 주관 반장 - 각 반 현황 파악 및 마을회 협조 등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작목반 등)	장원작목반, 하나작목반	과거 마을의 인구가 많았을 때 만들어진 작목반이 해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하우스 작목반으로 추정)
마을 축제·행사	해돋이 행사	양력 1월 1일에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를 지냄과 동시에 해돋이를 보며 마을 단합을 다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단합행사
	어버이날 경로잔치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로잔치 진행
	복달음 행사(삼복)	매년 여름 복날 맞이 행사(초복, 말복 마을 전체 참여)
	봄·가을 나들이	마을회 및 노인회 주관 행락철 나들이 행사
특이 사항	과거 장원리가 분구되기 이전에 함께 마을제를 지냈었음	

마을 자원 사진



농업 및 농촌 경관



농업 경관(시설재배)



공주알밤유통센터



동구나무(비선거리)



달원농원



달원농원 태양광단지

마을 자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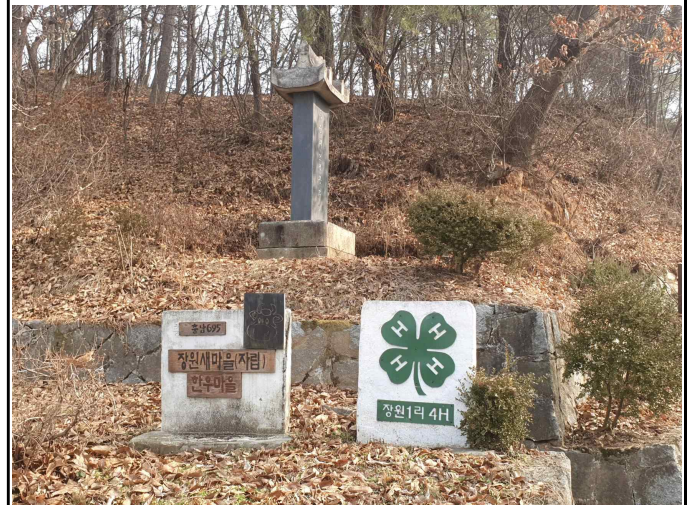
류천호 선생 공덕비



마을표지석



장순태 선생 공덕비



장원1리 4H표지석



최인식공 행적비



택지개발

마을 자원 사진



모곡농원



바이엔드컴퍼니



장원1리 마을회관, 경로당



장원보건진료소



청년회 컨테이너



정안교회

마을 자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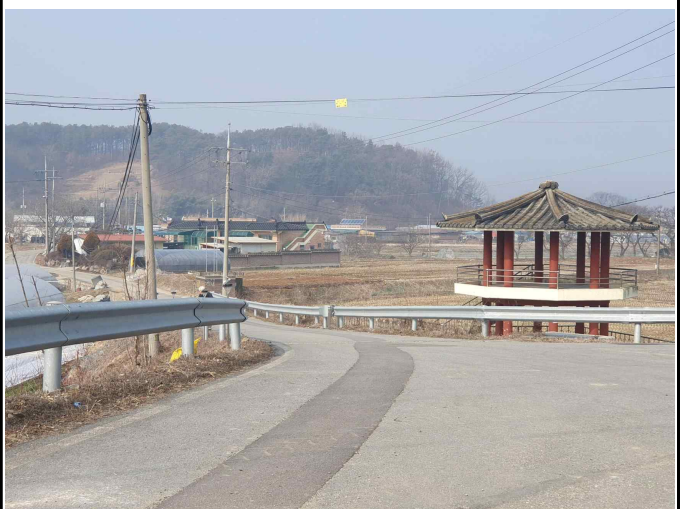
축사-150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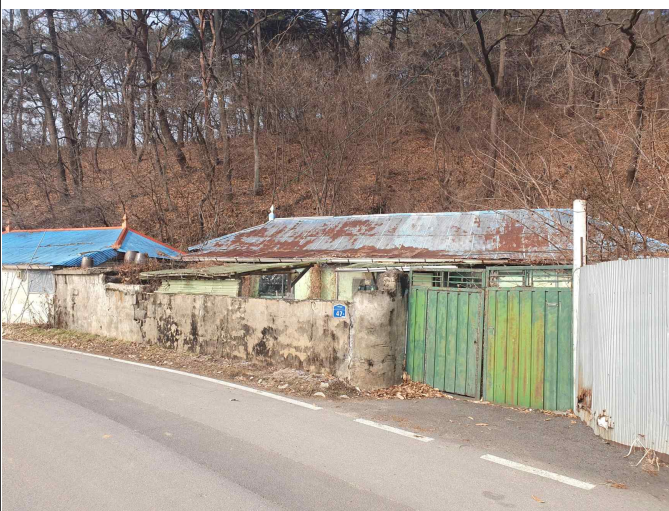
축사-60두, 세영레미콘



폐축사(추정)



해돋이 행사 팔각정



폐가



폐가, 대나무숲

마을 자원 사진



태양광 조명 - 주민자치회 사업



태양광 조명(2)

창달기
공주 장원리 유적 (公州 長院里 遺蹟)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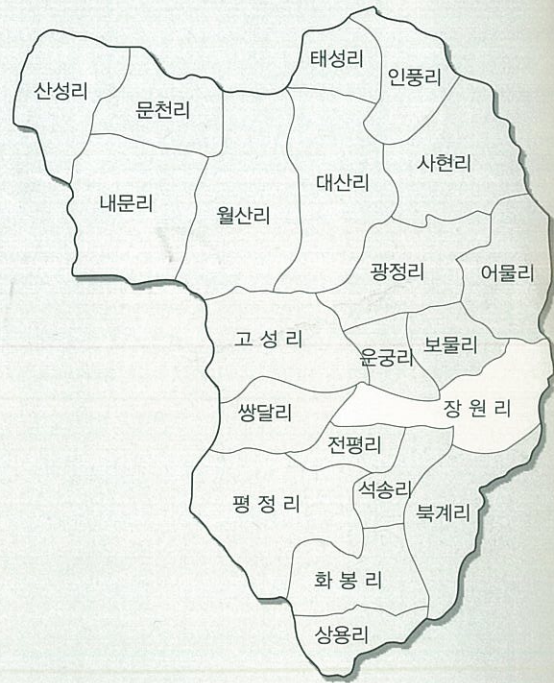
소재지	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440-4 일대
시대	1) 청동기시대 2) 철기/삼한/원삼국시대 3) 조선시대
유적분류	1) 유형문화재 > 유적 > 생활유적 > 주거유적 > 수혈주거지:취락지 2) 유형문화재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 > 토광묘:분묘 3) 유형문화재 > 유적 > 무덤유적 > 고분:분묘
상세설명	<p>장원리 유적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정안-행정간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내에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해 확인된 유적이다. 공주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유구의 징후가 확인되어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9년 충청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석기 시대의 유구퇴적층 1개소,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기,저장공5기, 유물퇴적층1개소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 29기, 옹관묘7기, 조선시대의 건물지1기, 수혈주거지2기, 분묘153기, 시대미상의 굴립건물지 1기 등 모두 20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장원리 유적을 대표하는 유구는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특징적 분묘 형태인 주구토광묘로 조사지역 전역에서 확인되어 주변유적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당시 지역집단의 문화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있다. 한편 조선시대 분묘153기는 주로 야산의 남쪽 경사면 일대에 집중되었는데, 이 중 11기는 회곽묘였고 나머지는 목관을 안치하거나 2단으로 굴광하여 매납을 조성한 토광묘였다. 조선시대 분묘는 대부분 한말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었으며, 최근에 조성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물이 출토되거나 회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는 분묘는 22기에 불과하였다. 장원리 유적의 유구 분포상을 종합해보면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의 유구는 모두 생활유구로 야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유구가 집중되었다. 원삼국시대의 분묘는 형태와 상호간의 시기차에 따라 고분군내의 입지 및 분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야산의 정상부를 포함한 능선전반에서 분묘가 확인되었다.출토유물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류, 석기, 청동기 시대의 점토대토기류, 원삼국시대의 주구토광묘에서는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set를 이루며 예외적인 토기로는 2호묘의 대부토기와 16호묘의 양이부호를 들 수 있다. (충청문화재연구원,대전지방국토관리단,2001,『공주 장원리 유적』)</p>
사진	

장원리 지형도



네이버 위성지도

장원리 위치도



풍요롭고, 인물이 많이 나오는 곳

1. 위치

동북쪽은 의당면 덕학리, 동남쪽은 두만리와 산을 경계로 접해 있고, 남쪽은 석송리와 전평리, 서쪽은 쌍달리와 접해 있다. 북쪽은 장원1리는 운궁리, 장원2리는 보물리, 어물리와 접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마을과 접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원리는 그 면적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장원리에는 공주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는 구 도로에 인접해서 10여 년 전에 4차선도로가 새로 개설되었고, 2002년에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한 마을 안에 국도 이상의 대로가 두 개나 나 있다.

'장자울'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정안 휴게소가 양쪽으로 들어서 있으며, 하행선 정안휴게소 공사 시 끊어진 산(휴게소 왼쪽 전평리와 경계 지점)에서부터 동쪽 멀리 있는 산의 상봉까지 수 Km나 되는 길이에 걸쳐 장원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가히 마을의 크기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리(里)단위 행정구역으로서는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곳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천안 가는 방향으로 12Km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장원리 안내 표지를 보면서 우회전하여 1Km 쯤 진행하다가 장원리 표석이 있는 곳에서 좌회전하여 가다 보면 오른쪽에 최의관(崔議官) 고택(古宅)이 있고, 왼쪽에는 장원리보



장원리 입구



장원리 표석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가 나온다. 이곳에서 산허리를 깎아 낸 길로 들어가면 넓은 평야를 앞에 두고 형성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이 '구역말'이라고 부르는 장원1리이다.

이 마을의 왼쪽으로 가다보면 장원1리 마을회관이 나온다. 노인회관과 겸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지나가면 냇물 가 도로변에 '수복정'이라는 현관이 붙어있는 정자가 나온다. 한편 이곳에서 제방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곧바로 '장원교'가 나온다.

장원교를 건너 진행하다 보면 왼쪽에 '현대프라임요양병원'이 나오고, 계속 진행하면 오른쪽에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장원2리이다.

장원2리를 오른쪽에 두고 계속 진행하면 제법 높은 고갯길을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높은 언덕이 '구재골'이라고 부르는 고개이며, 이곳에서 계속 직진하면 작은 고개에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직진하면 장원리 동쪽에 접한 덕학리의 이라울이라는 마을이



마을 입구 진입로

나온다.

장원리는 행정구역이 구역말을 중심으로 장원1리와 2리로 구분된다. 장원1리는 한 때 100호에 약 600명이상이 거주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87호에 약 200명이 살고 있으며, 장원 2리는 32호에 약 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 연혁과 유래

1)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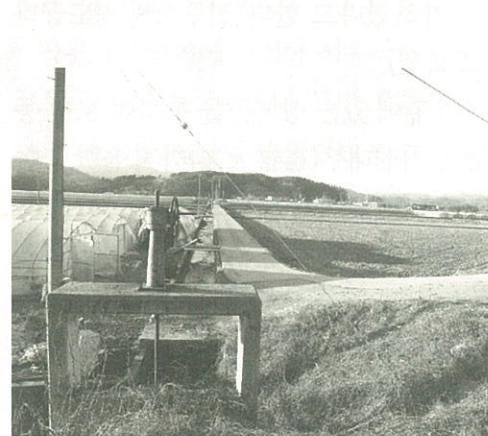
백제 때는 웅천에 속했다. 신라 때는 웅주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공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때는 공주군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말엽에는 공주군 정안면의 지역으로서 원(院)이 많았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궁원리(古弓院里), 능산리(能山里), 장천리(長天里), 서궁원(西弓院), 궁원리(弓院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원리

(長院里)라 하였다(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충청남도 공주시, 1997, 505-506).

2) 유래 1

이 마을에는 마을 이름이 '장원리'가 된 유래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호남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선비가 이 마을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온순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이방인이지만 융숭하게 대접을 하여 과거 길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 선비는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호남으로 내려가던 길에 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 급제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들렀는데,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어 또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저녁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선비에게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고궁원(구활원)', '서궁원', '장천리' 등 여러 이름이 난무하므로 한 가지



수로 시설

좋은 이름을 짓고자 하니 장원급제한 선비가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자 그 선비가 이 마을이 오랫동안 불러온 '장천리'라는 이름에서 '장(長)'자를 따고, 고궁원, 서궁원의 '원(院)'자를 따서 '장원(長院)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의 선비가 '이몽룡'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때 마을 이름을 지어준 선비가 누구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에 의하면 '모란부터 활원(지금의 운궁리), 광정(정안면소재지)까지 넓은 들로 형성되어 있어 이곳은 쌀밥만 먹고 살 부유한 마을'이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장원리의 중심인 '구역말' 앞에는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고, 일찍부터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언제나 곡식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마을이다.

3) 유래 2

이와 같이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들(논)이 넓고, 수로시설이 좋아 가난한 사람 없이 풍요롭게 살았다. 한때는 500석지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부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유래가 있다고 한다.

구역말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냇물 건너에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에 '빈정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펼쳐져 있는데, 도로 위 북쪽 '구룡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 산을 '위빈정산'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산을 '아래빈정산'이라고 부른다.

이 아래빈정산을 구역말에서 보면 '고무래' 모양처럼 생긴 삼각형 산이 보인다. 고무래는 곡식을 굽어모으는 데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로 보통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삼각형 모양의 널빤지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드는데, 삼각형 고무래 널빤지는 장원리에 있고 그 자루는 이 산의 동쪽 너머에 있는 중흥리의 구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쥐고 있다는 유래가 있었다고 한다.

본래 고무래는 곡식을 끌어 모으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장원리에서 나오는 곡식도 자루를 쥐고 있는 구씨네로 가고, 구씨가 고무래로 밀어내는 재산만 장원리 마을로 모였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마을에는 예부터 굶는 사람 없이 영원히 인제가 나온다는 유래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3. 입향조(入鄕祖)

장원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전주최씨와 전주이씨, 파평윤씨, 그리고 진주류씨 등의 성씨들이 어울려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에 처음 입향한 성씨는 전주최씨로 알려져 있다.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시조는 문열공(文烈公; 시호)으로 이름(諱)은 '순작(純爵)'이다. 고려 초에 평장사(平章事)를 지내고 완

산백(完山伯)에 봉해졌다.

고려 제11대 문종(1046-1083) 때 급제하여 문병(文柄)을 잡아 중서시랑(中書侍郎)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승진하였다. 문무(文武)를 겸비하여 여진 토벌에 많은 전공을 세워 정당복야·보문각학사·병부상서·판서를 거쳐 신호위상장군(15대 숙종; 1095-1105)에 이르렀다.

장원리에 처음 입향한 사람은 전주최씨 시조인 문열공의 15세손인 동지공(同知公)으로, 이름(諱)은 덕룡(德隆)이다(전주최씨 양도공파 돈녕공문중; <http://www.jeonjuchoi.or.kr/>).

동지공은 그의 8대조부인 평도공(平度公)이 조선 개국공신으로 청백리에 봉해져서 숙종조에 청주 송천서원에 배향되면서 청주에 세거지를 두었는데, 그후 동지공께서 홀로 청주를 떠나 이곳 공주 궁원(장원리)에 와서 많은 임야와 전지(田地)를 마련하고 아우 3명과 4형제의 아들과 함께 공락(共樂)함으로써 '사의당'이라 하여 세인의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한다(전주최씨 평도공파 족보 首권).

묘비 앞에 있는 상석문을 통하여 보면 동지공은 가선대부(嘉善大夫)까지 올랐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한편 동지공 묘소는 그의 5대조부인 돈녕공(敦寧公) 묘소의 아래에 안치되어 있으며, 묘소 아래 구활원 마을 위에 돈녕공의 재실인 돈녕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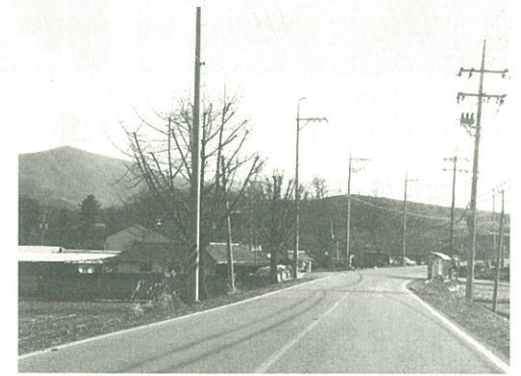
동지공(합향조) 묘소



돈녕공 문중 종손택



돈녕재(돈녕공 재실)



강성기미

4. 장원리의 이모저모

○ 강성(講聲)기미

장원리의 남쪽에 인접한 석송리에서 구도로로 장원리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낮은 구릉지를 지나면서 형성된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강성기미라고 부르는 곳이다. 새로 난 4차선 도로로 들어가면 장원리 표석이 나오는 마을을 가리킨다.

'강성(講聲)'이라는 말은 '글을 읽는 소리'라는 뜻이고, '기미(幾微)'라는 말은 '김새'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성기미라

는 말은 근처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는 뜻이 되겠다.

실제로 이곳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운궁리에 문화당(文會堂)이 있었는데, 이 문화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렸다고 해서 강성기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 최 의관(崔議官) 고택

장원리 표석이 있는 강성기미에서 구역말로 들어가는 길 바로 옆에 최 의관 행적비가 서 있고, 인접하여 고택이 있다. '최 의관'은 '최씨 성을 가진 의관'이라는 직함을 뜻한다.



최 의관 영정(좌)과 행적비(우)

최 의관의 자(字)는 상오(詳五)이며, 호(號)는 금은(錦隱)이고 이름(諱)은 인식(麟植)이다. 고종 기묘(己卯; 1879)년 2월 장원리에서 출생하였다. 전주최씨 평도공의 19세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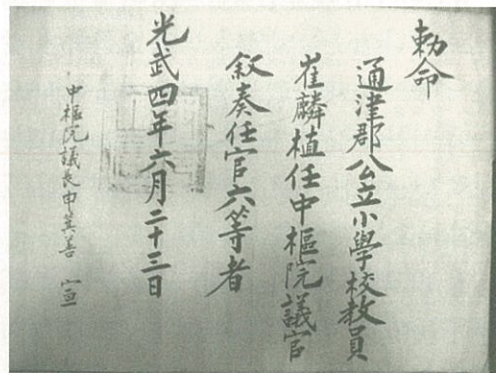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여 교관(敎官; 교사)이 되었다. 경자(庚子; 1900)년 6월 23일 중추원 의관(議官)에 임명되었다. 의관(議官)은 조선시대 고종 32년(1895)에 둔

중추원의 벼슬로 뒤에 찬의(贊議)로 변경된 벼슬이다. 갑진(甲辰; 1904)년에 농상공부 주사, 무신(戊申; 1908)년에 정3품에 올라 도지부세무관(度支部稅務官)이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귀향하여 학문을 닦으며 자손들을 교육하였다.

병기(炳琦), 병선(炳璿), 병면(炳冕), 병주(炳胄) 4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전주최씨 8대세보 편찬시 최고위원을 맡아 서문을 쓸



최 의관 고택



최 의관 임명장

정도로 학덕과 종친들의 신망이 높았다. 유작(遺作)으로 '금은집(錦隱集)'이 있다.

○ 성황당 자리

최 의관 고택을 지나서 장원리 중심 마을인 구억말로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깎아 만든 길을 지나가야 한다. 이 길은 본래 지금보다 훨씬 높은 언덕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니기 좋도록 길의 높이를 많이 깎아 내렸다고 한다.

이 길을 깎아 내리기 전부터 언덕길(지금은 교회 옆 고개)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오래 전에는 허수아비도 만들어 놓고 정월 초순이 되면 이곳에서 떡도 구워먹고 마을의 안녕도 기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황당 구실을 했다고 한다.

○ 구억(九億)말(마을)

언덕을 깎아 만든 길을 지나면서 나오는

마을이 바로 장원리의 중심마을인 구억말이다. '구억말'은 '구억마을'을 편하게 줄여 부르는 말이다.

또한 장원1리를 부르는 '구억말'은 '활원' 또는 '구활원', '구궁원'이라고 부르는 장원2리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궁원'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궁원'이라는 지명보다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구억말'이라고 부르는데, 옛날부터 '구억말(마을)'에서는 '쌀이 구억말(九億斗)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구억말 안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정미소가 지금도 있다.

한편 이 마을의 유래가 '쌀이 구억말(九億斗)이 나온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너그럽고, 이웃에 대한 배려심도 깊다.

장원1리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둘



구억말

째 주 토요일을 '장원동민의 날'로 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경로잔치 등 마을 친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보고 출향 인사들도 아낌없이 금원(金員)을 출연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 섬논, 샘논

구억말 안에 있는 전주최씨 문중 종손댁 근처에는 옛날에 '섬논'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작은 섬이 있는 샘이 논에 있었다고 해서 '섬논' 또는 '샘논'이라고 불렀다.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옛날 조선 시대에 명나라 사신이 공주에 왔을 때 전주 최씨 동지공 댁에 온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장원리에 처음 입향한 동지공은 재산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데, 동지공이 정말로 그렇게 부자인지 명나라 사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은 동지공 댁에서 늦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오는 대로 먹은 다음 섬논에 내던졌다고 한다. 당시에는 가격이 매우 비싸 재산의 척

도로 삼았던 늦쇠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그 집안의 부유한 정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음식을 담아 내오는 대로 늦쇠 그릇을 모두 섬논에 내던졌는데도 계속해서 늦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오는 것을 보고는 실로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동지공 댁에 늦쇠 그릇이 정말로 많았던 것은 아니고, 머리가 비상했던 동지공이 명나라 사신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여 섬논에 그물을 쳐 놓고, 명나라 사신이 늦쇠 그릇을 던지는 대로 바로 하인을 시켜 건져 내서 다시 음식을 담아내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라고 한다.

○ 뒷밭들

구억말 뒤쪽에 있는 밭 전체를 부르는 지명이다.

뒷밭들 서쪽으로 넓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구억말의 크기를 보려면 이 뒷밭들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



장원리 마을회관



정미소



뒷밭들

○ 동산들어들, 비선거리들

구억말 서쪽으로 동산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 길을 돌아가야만 들(논과 밭)이 나오기 때문에 '동산을 돌아 들어가야 나오는 들'이라는 말을 줄여서 '동산들어들'이라고 불렀다.

한편 동산들어들을 거의 끝까지 돌아 오다 보면 옛날부터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세워 있는데, 이 비석이 있는 거리를 '비석거리'라고 부르다가 그 후에는 발음하기 쉽도록 '비선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 비석은 높이가 2m쯤 되고, 폭이 약 80cm 정도 되는데, 비석이 서있는 곳에서 냇물 건너 북쪽의 운궁리에 있던 문화당(지금 은 터만 남아 있음)에서 화살을 쏘아 맞추기 위해 세웠던 과녁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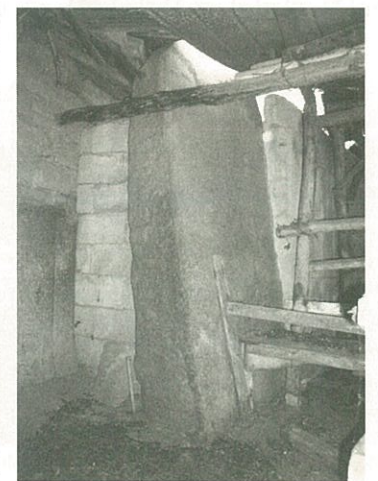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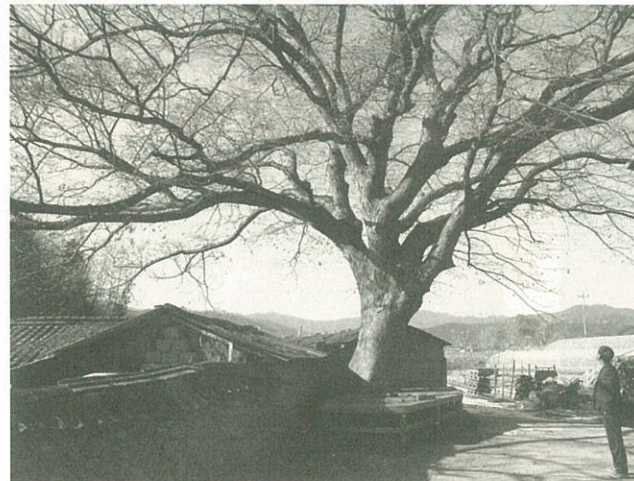
이 비석 바로 옆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에서 북쪽 방향으로 보면 운궁리와 의 경계에 또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이로 보아 이 비석이 과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석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비어 있는 집의 외양간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말모지기

최 의관 고택에서 구억말로 들어와 처음 나타나는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몇 집 안 되는 자연부락을 지나 둥글게 생긴 모퉁이를 돌아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곳을 말

느티나무(좌)와 비석



모지기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의 이장이 실제로 조랑말을 타고 이 길을 다녔다고 한다.

○ 장자울

장원리 표지석이 있는 강성기미 마을에서 구 도로로 남쪽인 석송 쪽으로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 달원농원이라는 표식이 있는 밤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새로 낸 4차선 국도를 길 아래로 횡단하는 터널 구조물이 있다. 이곳을 지나면 왼쪽으로 웬만큼 넓은 논과 밭이 보이고 오른쪽에 집이 두 채 있는데, 계속 길을 따라 진행하다 보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길 아래로 횡단하는 터널 구조물이 나온다. 이곳에서 터널을 들어가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면 상행선 고속도로 정안휴게소가 나온다.

한편 터널을 통과하여 좌회전하면 하행선 고속도로 정안휴게소가 나온다. 하행선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가는 터널을 나가면 오른쪽에 주택이 한 채 있고 앞에 있는 산에는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장자울

동쪽으로 천안-공주 간 국도까지 펼쳐져 있는 들을 '장자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장자울이 한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가 두 개나 새로 개설되어 장자울이 세 쪽으로 나누어진 결과가 된 것이다.

'장자울'에 대한 정확한 유래를 기록하기는 어렵다. 다만 옛날에 장자울에서 한꺼번에 500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커다란 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큰 부자를 점잖게 부르는 말'인 '장자(長者)'가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금광

장자울 맨 위에 있는 산은 일제강점기에 금광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금광이 있던 산에 모두 밤나무를 심어서 여러 군데에 있던 금광의 입구도 모두 메워져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금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서 장자울에 있는 많은 논에 모두 물을 대고도 남았다고 한다. 지금도 금광이 있던 곳 주변에 금광 굴속에서 금을 캐낼 때 부수어 끌어냈던 거무스레한 돌덩이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이곳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면서 장자울에 있는 모든 논과 밭을 파헤쳐서 금을 캐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로 낸 국도 근처까지 파헤쳤었다고 한다.



금광 입구

○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장자울에서 새로 난 고속도로 옆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속도로 정안휴게소가 나온다. 이 고속도로는 천안에서 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민자투자사업으로 지어진 것인데, 연장 81Km에 총사업비 17,300억원을 투입해 개설한 것이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는 4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그 중 2개가 이곳 장원리에 있는 것이다. 휴게소 규모가 매우 큰데, 전국의 18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사업실적도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 휴게소 남쪽 끝 지점에 공주가 밤 특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 칠떡거리 방앗간

구억말 마을회관에서 냇가 쪽으로 조금 가면 끝은길이 나오는데, 이곳을 가리켜 '칠떡거리'라고 부른다. 전에는 이곳을 '칠떡거리'라고 했었는데, 발음하기 좋도록 지금은 칠떡거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유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옛날에는 이웃 마을인 운궁리 쪽에 있는 연기보에서 물을 끌어 구억말에 있는 모든 집의 집안까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칠떡거리에도 연기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물방앗간을 돌린 적이 있다.

그때는 물방앗간 옆으로 수로에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서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둥구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천렵도 하는 등 왕래가 잦았던 곳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조형물

지금은 83세가 된 장원1리의 이병오 노인 회장이 젊었을 때인 1940년경부터 1960년 중반까지 물방앗간을 운영하였다.

한편 1950년대에는 이 방앗간 물로 자가 발전을 해서 구역말의 집집마다 전깃불을 밝혔다. 이때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발전기 소리가 커지면 집집마다 전깃불이 밝아지고, 반대로 물이 적게 흘러 발전기 소리가 작아지면 전깃불이 흐릿해졌다고 하니 이제는 아련한 옛 추억이 되었다.

○ 수복정과 구룡정

칠떡거리를 지나면 정안천 줄기인 냇가에 '수복정'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정자가 서있고, 냇물 건너 위 빈정산 아래에 '구룡정'이라는 정자가 마주보고 서있다.

팔각정으로 지어진 이 두 정자가 조화를 잘 이루며 서 있는데, 수복정이 세워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구룡정은 무척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지어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로 재건축 되어 있다. 특히 구룡정은 빈정산 아

래 절벽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 풍치와 위용이 불만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천렵을 하기도 하고 시조를 읊기도 하며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지금 60이 넘는 주민들이 어렸을 때는 구룡정이 서 있는 절벽 아래 냇물의 깊이가 한 길 반 이상이나 될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이빙도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절벽 아래 부분 깊은 곳에 굴이 있었는데, 옛날 이 굴에서 용이 아홉 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절벽 위에 지은 정자 이름을 구룡정이라 했다고 한다.

한편 이 굴의 이름을 '용호굴'이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큰 장마가 쳐도 이 굴속으로는 흙탕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며,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마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너무 깊고 새파랗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굴속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뒤에 냇물이 너무 깊어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 메웠는데, 이때 용호굴도 같이 메워지고 말았다. 지금도 구룡정 주위 경관이 아



수복정



구룡정

름답고, 수질도 깨끗해서 철새들이 내려앉기도 한다.

○ 장원교와 류천호 공적비

수복정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장원교가 나온다. 장원교는 장원1리와 장원2리를 연결하는 교각인데, 100m 길이에 6m 폭으로 1988년 6월에 준공되었다.

한편 장원교 바로 옆에 류천호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고 류천호 씨가 생전에 마을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7월 20일 장원1리 주민 일동이 세운 것으로 비석 뒷면에 그 내역이 새겨져 있다.

○ 서치보와 연기보

장원교에서 정안천 독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법 잘 만들어진 보가 나오는데, 그 보를 '서치보'라고 한다. 이 보는 '서쪽에 있는 논을 다스리는 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서치보(西治洑)라고 하였다. 이 보를 막아 저장된 물을 구역말

앞에 펼쳐진 넓은 들녘의 논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 이 마을이 늘 풍년이 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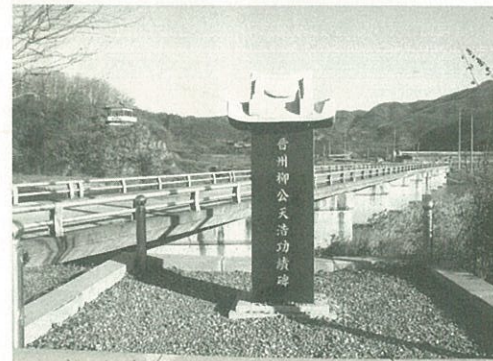
한편 이 보에서 북쪽 운궁리 쪽으로 올라가면 연기보가 있다.

운궁리에 있는 상수들과 담보들 사이에 있는 이 연기보는 구역말 뒷밭들 쪽으로 물이 유입되어 장원1리의 논과 밭 농사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을 대 주고 있다. 이 보의 이름이 '연기보'가 된 유래가 재미있다.

옛날 아주 가물었던 어느 해에 여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연기 지방에는 물이 부족해서 못자리에 사용할 물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기 사람들이 물이 풍족한 장원리까지 와서 이 물을 길어다가 못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 보를 '연기보'라고 했다고 한다.

○ 큰오얏골

장원교를 건너서 장원2리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장원오얏골길'이라는 표지가 나오는데, 이 표지를 보고 왼쪽으로 꺾어 들



류천호 공적비



장원교



서치보

어가면 제법 긴 골짜기가 나온다. 이 골짜기가 '큰오얏골'인데, 옛날에 이곳에 큰 오얏나무(자두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는 그 안에 암자도 있었고, 아담한 소류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큰오얏골을 넘어가면 보물리가 나온다.

○ 이천지골

큰오얏골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골짜기가 '이천지골'이다. 옛날 이침지라는 사람이 이곳을 처음 개간하여 콩을 심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침지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발음하기 쉽게 '이천지골'이라고 부른다.

○ 불무골과 현대프라임요양병원

이천지골에서 조금 더 가면 불무골이 나온다. 이 불무골에는 약 4년 전에 세운 '현대프라임요양병원'이라는 깔끔하게 지은 현대식 건물이 있다. 이 병원은 공주시에 있는 현대병원의 자매병원으로, 노인성질환의 치료 및 요양생활을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큰오얏길

설립한 전문노인요양병원이다.

○ 둥벙골과 산제당

불무골에서 큰길을 따라 장원2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앞으로 마을이 보이면서 오른쪽에 '둥벙이골길'이라는 표지가 보이는데, 그 표지를 따라 들어가는 긴 길이 바로 둥벙이길이며, 그 골짜기를 가리켜 '둥벙이골'이라고 한다. 둥벙이골에는 옛날부터 둥벙이라는 작은 소류지가 있었다고 하여 발음하기 쉽게 '둥벙골'이라고 하였다.

둥벙골 안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아래에 옛날부터 산제당이 있었다. 이 산제당에



현대프라임요양병원

서는 구활원에서 매년 정월마다 산제를 지냈었는데,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 없어졌다. 둥벙골을 넘어가면 의당면 두만리가 나온다.

○ 곧은 골

한편 둥벙골을 가다보면 둥벙골 소류지 아래 골짜기 형태로 곧게 난 길이 있는데, 이곳을 '곧은 골'이라고 부른다.

○ 구활원

장원2리 전체를 부르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는 '활원', '궁원'이라 부르던 마을인데, 지금은 이 마을을 구활원, 구궁원(舊弓院)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지형이 활처럼 생겼고, 옛날에는 이곳이 호남으로 통하는 큰길의 역할을 하여 조선시대 때 많은 행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궁원이 있었기 때문에 '활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삼남대교가 되어 광정과 함께 '활원광정'이라 하여 유명한 곳이었었는데, 큰길이 서쪽으로 나면서 활원이 운궁리

로 옮겨 가서 지금은 '구활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구활원에는 32호에 약 5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안에 노인회관이 있다.

○ 원곡정(源谷亭)과 최선생서당

'구활원'이라고 부르는 장원2리의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냇가를 따라 전주최씨 돈녕공 재실로 올라가는 길 왼쪽 언덕 위에 '원곡정(源谷亭)'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이 정자는 '원곡'이라는 호를 가진 최철규씨가 자신의 고향인 선조 묘소의 아래에 자리를 잡아 1984년 3월에 지은 것으로 정자 안 현판에 정자를 세우게 된 연유를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다.

옛날에 원곡정 바로 옆에 최선생서당(훈장; 최병선)이 있었는데, 장원리뿐만 아니라 정안, 의당 등지에서 행색이나 한다는 사람들은 이 서당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 서당은 최병선 선생이 작고하면서 1960년대에 없어졌다.



둥벙이골 표지



둥벙골

○ 불당고개

원곡정에서 다시 큰길로 나와 오른쪽으로 새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제법 높은 고개가 나온다. 이 고개가 정안면 장원리와 의당면 덕학리를 경계 짓는 곳인데, 수년 전에 새로 낸 길이다. 지금은 이 고갯길이 크게 새로 났기 때문에 장원리에서 의당면, 덕학리 방향이나 연기군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이 길이 새로 나기 전에는 구활원의 동북쪽에 지금도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곳을 지나 의당면 덕학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에 불당이 있었기 때문에 '불당고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로 난 길이 있고, 또 자동차로 다니는 시대가 되어 근년에 그 고개를 넘어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 질마재, 길마재, 안현

불당고개 아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고개의 생김새가 소나 말의 등에 걸쳐 놓고 균



구활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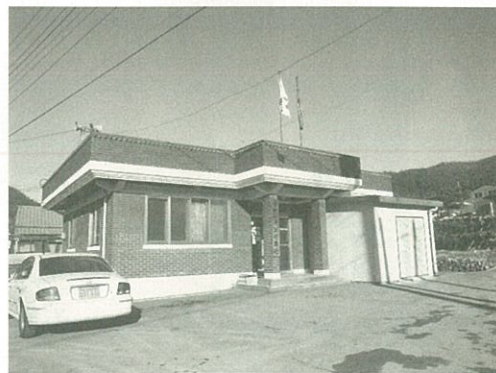
형을 이루어 양쪽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길마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길마재'라고 하였는데, 발음하기 쉽도록 보통은 '질마재'라고 불렀다. 구활원에서 덕학리의 학련동으로 넘어 다닐 때는 이 고개를 이용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다.

○ 새나무골

구활원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본래 쇠나무(고르쇠나무)가 많이 나는 골짜기라고 하여 '쇠나무골'이라고 하였지만, 그 후에는 발음하기 쉽도록 '새나무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구재골

본래는 새나무골 위쪽에 있는 고개로, 여기부터 구활원 뒷산으로 이어지는 두만리로 넘어가는 고개까지 모두 아홉 개의 재를 넘어 다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은 6, 7년 전에 새로 난 큰 고갯길을 구재골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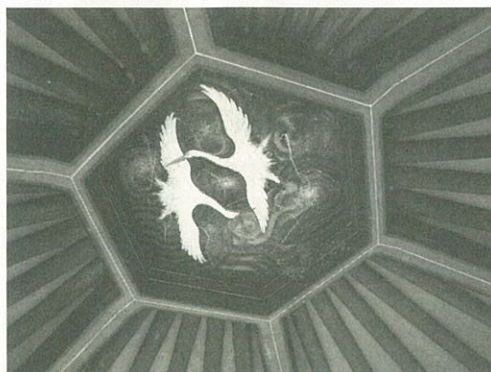
장원2리 노인회관



재실 가는 길 왼쪽에 있는 원곡정



원곡정 현판



원곡정 천정



구재골

5. 장원리가 배출한 인물

장원리는 중심 마을인 구역말이 '쌀이 구역말(九億斗)이나 나온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과 같이 예부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유한 편이었고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학교가 있는 공주 시내까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대학을 진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장원리에서는 자녀들이 열심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이 마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히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조선시대 말기의 최 의관을 비롯, 현대에 들어와서 정치계,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교육계, 행정계 등에 시골의 작은 한 마을에서 배출했다고 보기에는 매우 많은 인물이 나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장원리에서 배출한 주요 인물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 최병기 전교

최 의관의 큰아들로 1896년 11월 12일 장원리에서 출생하였다. 충청지역의 유명한 학자인 간재(良齋) 선생 문인(門下)에서 수학하였다. 문회당 집례와 공주향교(당시에는

‘문묘’) 전교를 역임하였으며, 유작으로 경산일기(敬山日記)가 있다.

▷ 고 김기창 화백

구한말 공주에서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한다. 나비 그림을 매우 잘 그리던 화가라서 지금도 장원리에서는 ‘김나비’라고 부른다.

▷ 고 윤용석 전 교장

현재 83세인 이병오 노인회장의 은사이드로 만일 생존해 있다면 100세가 넘는다.



고 윤용석 전 교장
(출처: 제자 이명하 씨 제공)

구억말에서 출생하여 정안초등학교 설립초기에 입학하였다. 사범학교 졸업 후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장원리에 거주하는 나이 든 사람 대부분이 윤 교장의 제자이다.

▷ 윤재기 전 국회의원, 변호사

1944년 장원리에서 출생하여 공주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73년에 사법고시에 수석합격을 하였는데, 당시에 그가 취득했던 점수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197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검사로 재직하였다. 1981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1988년 13대 국회의원(지역구: 공주)에 당선되었



윤재기 전 국회의원
(출처: 네이트 인물검색)

다. 1992년 민자당 원내부총무, 1992년 신한국당 창당발기인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people.nate.com/people/info/yo/on/yoonjaegi/>).

10여 년 전에 그의 모친이 작고하였는데, 고인께서 지냈던 돈을 장원리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그 기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지금도 장원리 출신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건우 원장

구억말에서 출생하였다. 공주중학교와 공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건우 원장

흉곽외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국립공주병원에서 의무과장으로 10년간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공주시 산성동에서 이견우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최상훈 전 교수

지금까지도 최 면장으로 불리는 고 최창규 전 정안면장의 아들이며, 공학박사로 건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 최원규 전 교수

최 의관의 손자로 1933년에 출생하였다. 공주고등학교, 공주사범대학,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문학박사



최원규 전 교수(출처: <http://www.gocj.net>)

로 충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 최영규 전 교장

최 의관의 맏손자이며, 고 최병기 전 공주향교 전교의 아들이다. 최원규 교수와는 사촌이다.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거쳐 공주교육대학을 1회로 졸업하였다. 석송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의당초등학교 교감, 안면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 이창하 전 국장

1966년 공주군청 건설과 근무를 시작으로 1990년 충청남도청을 거쳐 1992년 태안군청 건설과장, 1994년 당진군청 건설과장, 1999년 공주시청 도로교통과장을 역임하였다. 2007년에는 공주시 산업건설국장에 승진하였고, 2008년 정년퇴임하였다.



이창하 전 국장

▷ 이건수 교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9월부터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의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이건우 원장과는 사촌이다.

▷ 윤봉오 전 교장

강성기미에서 출생하였다. 정안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였다.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서천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부여고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

교감을 거쳐 부여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 이석하 교수

이건우 원장의 아들로, 의학박사이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교수의 부인(이은주)도 의학박사로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은수 교수

이창하 국장의 아들이며 공학박사로 현재 명지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최상철 교장

비인중학교 교장, 사곡중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는 공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최상구 교장

최상철 교장의 동생으로, 공주시 우성면 소재 상서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이범하

이건덕 씨의 아들로, 2008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이다.

▷ 최서락

최선웅 씨의 아들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법무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이밖에도 장원리에서는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모두 소개하지 못하여 아쉽다.

6. 도움을 주신 분들

장원리를 소개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을 때 장원1리 이견덕 전 이장, 이병오 노인회장과 류상희 이장, 그리고 이광하 지도자가 여러 차례 많은 시간을 내어 마을의 이곳, 저곳을 자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다. 수 차례의 답사를 통해 이분들이 장원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애정과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록에 도움을 주신 분들

류상희 씨(장원1리 이장, 010-2200-8259)
이견덕 씨(장원1리 전 이장)
이광하 씨(장원1리 지도자)
이병오 씨(장원1리 노인회장)
최복락 씨(전주최씨 돈녕공파종회 중손)
〈가나다 순〉

참고 자료

『공주지명지』(1997), 공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충청남도 공주시
네이트 인물검색 (<http://people.nate.com/people/info/yo/on/yoonjaegi/>)
대전시티저널 포토&영상 (<http://goci.net/news/articleList.html>)



도와주신 분들